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471-512
<https://doi.org/10.29212/mh.2026..140.47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논문 7

전환기 한국 공군의 현대화와 지휘 리더십 연구

- 제6대 참모총장 김신 재임기(1960~1962)를 중심으로

이수훈 | 국방대학교

- 목 차
1. 서론: 연구배경 및 문제 제기
 2. 김신의 군사적 성장과 제6대 공군참모총장 취임
 3. 공군 조직의 혁명적 변화: 공군작전사령부 창설
 4. 전력 증강과 훈련 체계의 현대화
 5. 작전 교리의 발전과 군사 활동
 6. 정치적 소용돌이 속의 리더십
 7.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정치적 격변기였던 1960년대 초반, 제6대 공군참모총장 김신(金信)의 군사적 리더십이 한국 공군의 근대화와 작전 능력 발전에 미친 영향을 조직사적·군사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960년부터 1962년까지의 시기는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이 교차하는 위기의 시기였으나, 역설적으로 한국 공군이 미군에 종속된 전술 지원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휘통제력을 갖춘 현대 전술 공군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기였다. 본 연구는 공군사 등 공군 내부의 자료와 국방부 및 미 국무부 자료 등을 교차 검증하는 분석을 통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김신 지휘부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실증적으로 조망하였다. 첫째, 1961년 공군작전사령부(AFOC)의 창설과 전천후 방공 교리(GCI)의 도입은 군정과 군령을 분리하고 미 공군으로부터 독자적인 영공 방위 기틀을 마련한 전략적 혁신이었다. 둘째, 북한의 초음속 제트기 증강이라는 비대칭적 위협에 맞서 T-28 중등 훈련기를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조종사 양성 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실질적인 전력을 개선하였다. 셋째, 육군 중심의 기형적 국방구조와 5·16 직후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김신 총장은 정치적 현실주의와 항일 독립운동 시기부터 다져온 대만과의 인적 네트워크 등 군사 외교를 통해 공군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한미 군사 원조의 연속성을 굳건히 확보했다. 결론적으로 김신 참모총장의 재임기는 척박한 안보 환경 속에서도 현대 한국 공군의 작전적·조직적 토대를 쌓은 시기로 평가된다. 그는 단순한 혼란기를 버텨낸 정치적 인물을 넘어, 공군 현대화를 이끈 선구적 군사 전략가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Key Word) : 김신, 공군 현대화, 공군작전사령부, 지휘 리더십, 군사 외교

1. 서론: 연구배경 및 문제 제기

가. 연구의 배경: 잊혀진 과도기와 리더십의 재발견

대한민국 국군사, 특히 공군사 연구에서 1960년대 초반은 흔히 ‘정치적 격동의 시기’로만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인한 제1공화국의 붕괴, 군 내부의 세대교체를 요구한 정군(整軍) 운동, 그리고 1961년 5·16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체제 변동은 국방과 안보라는 본질적 주제를 가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학계의 관심은 군의 전력 발전과 같은 군사적 성취보다는, 정치 전면에 나선 군인들의 행보와 민군 관계의 파행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정치사적 시각에서 벗어나 군사 기술적·조직사적 관점으로 이 시기를 들여다보면 다른 역사의 맥락이 드러난다. 당시 한국 공군은 6·25 전쟁기의 ‘지상군을 지원하는 보조 전력’이라는 한계를 넘어, ‘독자적인 작전 통제력과 전천후 방공 능력을 갖춘 현대적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환기를 지나고 있었다. 냉전 최전선이라는 지정학적 압박과 미국 군사 원조라는 제약 속에서도, 공군은 체제 변동의 소용돌이를 건디며 내부 혁신을 이어가야 했다.

이러한 군사적 전환점의 중심에는 제6대 공군참모총장 김신(金信, 1922~2016)이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金九)의 차남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그는 1960년 8월 1일부터 1962년 8월 1일까지 만 2년의 재임 기간 동안 한국 공군을 지휘했다. 기존의 역사 연구 및 대중적 인식은 김신이라는 인

물을 다룰 때 주로 그의 가계(家系)적 배경이 주는 후광이나, 5·16 당시 최고 통치 기구에 참여했던 정치적 행보에 방점을 두어왔다. 이는 그를 군사 전문가로서보다는 혼란기의 ‘정치적 행위자’로 좁게 해석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 중심적인 접근은 그가 참모총장으로서 주도한 국방 정책과 군사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간과하게 만든다. 김신의 재임기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공군의 장비(하드웨어)와 조직·교리(소프트웨어)가 함께 혁신을 이룬 현대 공군사의 중요한 기점이었다.

나.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사적 공백

한국 전쟁사 및 국방사 연구에 있어 학술적 관심이 주로 6·25 전쟁기의 주요 전투와 작전에 편중됨에 따라, 1960년대 초반 공군의 현대화와 지휘 체계 발전에 대한 조명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기존의 연구 문헌들은 대부분 공군본부에서 편찬한 『공군사 제3집』이나 『공군 25년사』 등 공식적으로 발간한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 기록들은 부대 창설이나 장비 도입 등의 연대기적 사실 나열에는 충실하나, 그 이면에 작동했던 정책 결정자들의 고뇌나 미 7공군 및 미 군사고문단과의 협상 과정, 그리고 교리적 변화가 지니는 전략적 함의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는데에는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참전 유공자들의 개인적 회고록 역시 미시적인 전투 경험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최근 광복군 출신 인사들의 대한민국 국군 창설 참여와 기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들의 역사적 정통성이 점진적으로 규명되고 있으나¹⁾, 이는 주로 보병 중심의 육군에 치중되어 있다. 김신과 같이 ‘항공 독립운동’의 계보를 직접적으로 이으며 공

1) 김민호, 「한국광복군 출신의 대한민국 국군 참여와 역할」, 『군사』 제125호, 2022, pp.81-130.

군의 현대화와 작전통제권 일원화에 기여한 인물이 조직적·전술적 차원에서 미친 영향에 대한 학술적 조명은 여전히 거대한 공백으로 남아있다.

특히 1960~1962년의 시기는 4·19 혁명과 5·16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정치적 격변이 교차하던 시기였던 탓에, 김신 참모총장을 ‘군사 정책결정자’나 ‘조직 혁신가’로 평가하기보다는 정치권력과의 역학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데 급급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술적 공백과 편향을 극복하고자 당시의 1차 사료, 회고록 및 부대사 등을 교차 검증하여 단순한 정사(正史)를 넘어선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다. 핵심 연구 질문

본 연구는 김신 장군이 공군참모총장으로 재임한 1960년부터 1962년까지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여, 이 시기 한국 공군의 조직개편, 전력 증강, 교리 발전, 군사 외교적 활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 격변기라는 위기 속에서도 국방 조직이 어떻게 군사적 전문성을 유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조직 및 교리 혁신의 측면에서 1961년 공군작전사령부 창설과 전천후 방공 교리 도입은 어떤 군사적 의미를 지니는가? 이는 단순한 행정 기구의 신설을 넘어, 군정과 군령을 분리하고 미 공군 중심의 작전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휘통제(C2) 체계를 갖추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전력 대응의 측면에서 김신 체제의 공군은 북한의 제트 전력 급성장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북한의 초음속기 도입이라는

위협 속에서 T-28 훈련기 도입과 조종사 양성 체계 개편의 군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차세대 전투기 확보를 향한 인식의 전환 과정을 평가한다.

셋째, 정치·군사적 역학 측면에서 김신 지휘부는 거시적인 국방 체제의 변화와 한미 동맹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공군의 현대화를 어떻게 관철해 냈는가? 방대한 병력 위주의 육군과 달리 소규모 기술 집약적 군종이었던 공군의 구조적 특성이 역설적으로 정치화의 격랑을 피하게 한 요인이었음을 분석하고, 5·16 직후 그의 정치적 참여와 대만과의 군사 외교 등이 공군의 자율성을 지키는 전략적 방패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본다.

라. 연구 방법 및 사료검토

본 연구에서 상정한 ‘전환기’란 정치적으로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이 잇달아 발생한 헌정사의 격변기인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구형 아음속·프로펠러기 체제에서 현대적인 초음속 무기체계 및 전천후 지휘통제 체제로 넘어가는 이중적 의미의 과도기를 뜻한다. 또한 본 연구가 채택한 ‘조직사적·군사 기술적 관점’은 당시 지휘부의 행보를 단순한 정치·권력 역학이 아닌, 지휘 구조의 개편과 작전 교리의 진화라는 군사 제도의 실질적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추적하는 분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군 현대화’는 단순히 낡은 항공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 갱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공군 현대화를 ①전투기·훈련기·레이더 등 무기체계 및 전력 구조의 발전, ②작전사령부 및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위시한 지휘통제(C2) 및 방공 체계의 구축, ③지상통제요격(GCI) 등 교리 및 작전 개념의 진화, ④제트기 시대에 걸맞은 교육 및 훈련체계의 개편이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의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결합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지휘 리더십’은 단순한 부대 지휘나 행정적 관리를 넘어, 제한된 국방 자원과 한미 군사동맹의 제약 속에서 위 네 가지 현대화 요소의 조합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조직 내에 제도화해 낸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공군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공군본부 발간 사료나 참전 유공자들의 개인 회고록 등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온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간사, 외교문서, 회고록 등 성격이 다른 사료군을 상호 비교·검증하는 ‘문헌 교차 검증(Cross-Source Verification)’ 방식을 취한다.

먼저, 공군 지휘부의 정책적 결단이 지니는 전략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사실 확인의 기준’으로는 1차 사료 및 국가 공식 기록물을 활용한다. 여기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한국 국방체제의 형성과 조정, 1945-1970』, 『한국군 전력증강사 1』 등 국방 전체 수준의 공간사(公刊史)와 미 국무부 외교사료집(FRU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등 미국 측 안보 문서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당시 한국 공군의 현대화가 단순히 내부적 요구가 아니라, 미국의 아태지역 방공망 구축 전략 및 군사원조(MAP) 정책과 어떻게 맞물려 있었는지 거시적으로 조망한다.

반면, 김신장군기념사업회 자료, KTV 대한뉴스, 국방 홍보용 유튜브 영상 등 대중적·기념적 성격을 띠는 자료들은 당시 지휘관과 장병들의 현장 경험, 위기의식,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보조 사료’로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서술의 생동감을 더하되 역사적 과장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의 질문들에 1차 사료와 군사 교리적 관점을 바탕으로 답함으로써, 1960년대 초반 한국 공군의 발전사를 객관적으

로 복원하고자 한다. 나아가 김신을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 현대 한국 공군의 기틀을 다진 선구적 군사 전략가로 재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김신의 군사적 성장과 제6대 공군참모총장 취임

김신이 참모총장 재임기 동안 보여준 강력한 추진력과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단호한 정책적 결단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거처온 굴곡진 생애사적 배경과 전장 경험의 궤적을 짚어보아야 한다. 그의 리더십과 행동 양식은 단순히 가계적 후광에 기댄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겪은 망명객으로서의 고난, 극한의 투병과 훈련, 그리고 참혹한 실전 비행을 거치며 강철처럼 단련된 경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다.

가. 항일 항공 독립운동과 생사를 넘나든 엘리트 교육

김신은 1922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일제의 삼엄한 추적을 피해야 했던 어린 시절, 그는 난징(南京)에서 ‘관신(關信)’이라는 가명으로 일본 교포로 위장하여 소학교에 다녀야 할 만큼 일찍부터 억압과 시련의 삶을 내면화했다.²⁾ 그는 임시정부의 험난한 피난길을 함께하며, 빈약한 무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항공력이 필수적이라는 ‘항공 독립운동’의 뜻을 품었다.

그의 비행 훈련 과정은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연속이었다. 전 시 중국 윈난(雲南)에서 수학하던 시절, 그는 벗짚이 깔린 열악한

2) 김신, 『조국의 하늘을 날다』(경기: 돌베개, 2013), p.47.

방에서 말라리아와 장티푸스에 연이어 감염되어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질 정도로 사경을 헤맸다. 당시 한국인 의사 김좌경의 헌신적인 간호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 경험은, 훗날 미국 공군 병원의 군의관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라고 경악할 정도였다.³⁾ 이러한 투병 경험은 향후 그가 극한의 훈련과 전장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인한 신체적·정신적 내구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후 그는 중화민국 공군군관학교를 거쳐 인도 라호르(Lahore) 기지로 파견되었는데, 그곳에서 유일한 한국인 훈련생으로서 숨이 턱 막히는 열대지방의 살인적인 폭염을 견뎌내며 조종사로서의 뼈대를 완성했다.⁴⁾

이러한 고난의 수학 과정은 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남겼다. 첫째, 전시 중국 대륙을 누비며 서남연합대학과 비행학교에서 맺은 인연이다. 그는 대학 시절 훗날 대만의 사법행정부장(법무부장관)을 지낸 자량젠(查良鑑) 등 중국의 주요 엘리트 지식인들과 깊이 교류했다.⁵⁾ 타국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중국인 동기들과 사선을 넘나들며 맺은 전우애와 인연은, 훗날 한국과 대만 양국 간의 군사 외교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임시정부 시절 난징, 충칭을 비롯한 피난지에서 일본 해군 항공대의 무차별적인 공습을 맨몸으로 겪어야 했던 경험⁶⁾은, 김구와 김신 부자(父子)에게 조국 독립과 생존을 위해 항공력 확보가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를 뼈저리게 각인시켰다. 이러한 뼈

3) 김신(2013), pp.72-73.

4) 김신(2013), pp.90-91.

5) 김신(2013), pp.77-78.

6) 김신(2013), p.47., 김국화, “충칭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착과 외교 활동” 『독립신문』(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https://www.nmkpg.go.kr/webzine/story/cn.do?rid=351>

아픈 통찰은 훗날 김신이 미국 비행 유학 직전 형(김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귀국하려 했을 때, 아버지 김구가 “나라가 수립돼도 너 같은 인재를 양성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너는 이미 발을 들여놨으니 공부를 계속해라”라며 사사로운 가족의 슬픔보다 국가의 전략적 미래를 우선할 것을 엄명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했다.⁷⁾ 아버지의 단호한 편지는 김신에게 개인의 안위나 감정보다 국가적 대의와 주권 회복을 최우선시하는 철저한 공적 책임감을 내면화시켰다.

나. 6·25 전쟁의 실전 경험과 확고한 지휘 철학

김신의 군사적 식견은 행정 부서가 아닌 참혹한 전쟁터의 조종석에서 완성되었다. 김신의 초기 비행 기록에는 오랜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주권 국가의 항공력을 건설한다는 강한 국가적 동기가 투영되어 있다. 국방경비대 육군항공대 시절 태극 마크를 단 항공기를 조종하며 한강 교량 하단으로 비행한 일화 역시, 단순한 조종기량의 과시라기보다는 조국의 영광을 회복했다는 국가적 자긍심과 항공 주권에 대한 강한 의지가 표출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⁸⁾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직후 여의도 비행장에서 적의 공습을 목격한 그는, 일본에서 F-51 전투기를 인수받았다. 중공군 참전 이후에는 F-51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강릉 비행장으로 전개했다. 조종사들은 삭풍이 부는 모래밭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며, 폭설로 보급이 끊기면 직접 총을 들고 산비둘기를 사냥해 끼니를 때우면서도 매일같이 사선을 넘나드는 출격에 나섰다.⁹⁾

이 시기 작전 지휘관으로서 김신은 확고한 지휘 철학을 보여주

7) 김신(2013), p.92. 김인은 1945년 3월 29일 폐병으로 사망하였다.

8) 김신(2013), p.154.

9) 김신(2013), p.194.

었다. 작전의 주도권을 쥔 육군은 공군에게 눈앞의 고지를 타격하는 근접항공지원(CAS)만을 맹목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김신은 긴 호흡으로 볼 때 적의 병력과 군수 물자가 최전선에 도달하기 전에 보급로를 끊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일이라며,¹⁰⁾ 상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적의 동맥을 끊는 ‘항공 차단(Air-Interdiction)’ 작전의 전략적 우위를 강력히 관철하려 애썼다. 수차례 실패했던 평양 인근 ‘승호리 철교’를 초저고도 침투 비행이라는 창의적이고 위험한 전술로 기어코 폭파해 낸 일화¹¹⁾는, 지시만 따르는 관료가 아니라 해법을 찾아내는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증명한다.

그러나 무공의 이면에서 그는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기 는 했지만, 내 조국의 산하에 폭탄을 투하해야만 했고 비행 기술을 동족의 가슴을 겨누는 데 써야 했다”며 뼈아픈 고뇌를 평생 짊어져야 했다.¹²⁾ 이러한 고뇌 속에서도 그를 지탱한 것은 생전 아버지 김구의 “나라 사랑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프고 고단하고 배고프고 추울 때도 변함없이 해야 한다”는 숭고한 애국관의 가르침이었다.¹³⁾

다. 전후의 시련과 공군참모총장 취임

휴전 이후 전쟁 영웅이었던 김신의 군 생활은 오히려 순탄치 않았다. 전장에서 사선을 넘나든 그였지만, 전쟁 내내 후방 안전지

10) 김신(2013), p.192.

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 전투 2』(2017), pp.343-3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2016), pp.427-428, 대한민국 공군 유튜브 “[대한민국 공군 3대 전승 작전] 1.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https://www.youtube.com/watch?v=7y2X64CgJwk>

12) (사)김신장군 기념사업회, “김신 이야기, 군인의 삶”, <http://www.kimshin.org/info/story.asp>

13) 김신(2013), p.156.

대에서 행정과 인사를 장악하며 파벌을 형성한 일부 세력들의 집요한 견제와 모략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그가 비행기를 몰고 북으로 월북했다는 악의적인 헛소문이 조직 내부에 퍼질 정도였다. 결국 그는 일선 지휘부에서 한걸음 물러나 국방대학 정규과정 학생으로 지내야 했다. 평소 후진 양성에 깊은 뜻을 품고 내심 공군사관학교 교장직을 바랐으나 끝내 그 직책을 맡지는 못했다.¹⁴⁾ 비록 중상모략에 의한 견제 속에서 스스로 마음을 비워야 했던 인고의 시기였으나, 이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 이 시기는 역설적으로 그에게 군 전체의 거시적 구조를 조망하고 성찰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하고 정치적 쇄신이 요구되자, 당시 이종찬 국방부 장관은 부패 세력과 결탁하지 않고 실전 경험과 역사적 상징성을 두루 갖춘 김신을 제6대 공군참모총장에 전격 발탁했다.¹⁵⁾ 주류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그의 이력이 오히려 위기의 시기에 조직을 묶어내는 구심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극한의 훈련과 실전, 그리고 내부의 시련을 모두 극복하며 단련된 경험은, 향후 그가 조직 혁신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강건한 리더십의 원천이 되었다.

3. 공군 조직의 혁명적 변화: 공군작전사령부 창설

1960년대 초반 한국군의 거시적 국방 구조는 지상군 중심으로 심하게 편중되어 있었다.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Agreed Minute)에 따라 한국군 총병력은 72만 명 수준으로 책정되었고,

14) 김신(2013), pp.209-210.

15) 김신(2013), p.212.

이 중 육군이 절대다수(약 66만 명)를 차지한 반면 공군은 1만 6,500여 명에 불과한 소규모 군종이었다.¹⁶⁾ 그러나 공군은 병력의 양적 규모와 무관하게, 첨단 제트 무기체계 운용과 주한 미 제 7공군과의 연합 방공 교리에 철저히 연동되어 작동하는 고도의 ‘기술 집약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특수성은 방대한 병력을 관리하는 행정적 ‘군정(軍政)’보다, 전장 상황의 신속한 판단과 고도화된 연합 작전 통제를 요구하는 ‘군령(軍令)’의 전문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당시 미국의 아태지역 안보 전략 변화에 따라 공군의 전술 부대와 장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앙집중식 행정 통제 방식은 심각한 병목 현상을 초래했다. 즉, 공군의 고유한 기술·작전적 특성은 기존의 기형적인 지휘 체계를 개편하여 전투 지휘와 행정을 분리하는 작전사령부 창설을 요구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 창설의 배경: 지휘통제의 한계와 군정·군령 분리의 필요성

1960년대 초반, 한국 공군은 미군의 원조를 통해 제트기로 전력을 전환하며 양적·질적 팽창을 맞이했다. 공군은 1958년 1월 10일자로 수립된 ‘무술작전(戊戌作戰)’¹⁷⁾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제11전투비행단의 3개 전투비행대대 창설을 비롯해 제31전술통제비행전대, 제32정찰비행대대, 제33구조비행대대, K-39 관제경보대대 등 다수의 전술부대를 대대적으로 창설해 나갔다. 나아가 1959년부터는 새로운 ‘전력증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신예 항공기 도입, 방공관제경보기구의 확장, 신기지 건설 등 공군 현대화

16) 백기인, “한국 국방체제의 형성과 조정, 1945~1970”, 『군사』 제68호 (2008), p.76-77.

17) 공군본부, 『공군사 제3집』(1968), p.97.

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¹⁸⁾ 이러한 공군의 급격한 팽창은 단순한 내부적 전력 증강의 결과가 아니라, 당시 미국의 거시적인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의 근본적 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미 국무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외교·안보 기밀문서(FRUS)에 따르면, 1957년 말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 사단들을 핵전장 환경에 대비한 ‘펜토믹(Pentomic)’ 구조로 개편하고 이중 용도(Dual-Capable) 무기체계의 도입을 공식 허가하는 등 전략적 억제력을 고도화하고 있었다.¹⁹⁾ 이와 동시에 미국은 한국군의 전체 병력 규모를 72만 명에서 63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는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공군에 대해서는 개정된 정책 지침에 따라 제트기의 즉각적인 이전 계획을 지시했다.²⁰⁾ 이는 공중 우위와 신속 타격을 중시하는 새로운 냉전의 안보 지형 속에서 한국 공군의 전략적 위상과 임무 비중이 급격히 커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처럼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부대와 장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본부 내에는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기획 관련 부서조차 없었으며, 작전국에서 현재의 기획 업무에 해당하는 일까지 도맡아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이었다. 더욱이 이전까지 한국 공군은 공군본부의 참모총장이 예하의 전투비행단과 여러 독립 전대를 중간 지휘 거점 없이 직접 통제하는 단일화된 구

18) 공군본부(1968), p.318.

19)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58-1960*, Vol. XVIII., 207. Memorandum on the Substance of Discussion at a Department of State-Joint Chiefs of Staff Meeting; 286. Letter From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Parsons)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20)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58-1960*, Vol. XVIII, 239.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조를 고수하고 있었다. 병력 규모가 작았던 초기에는 이러한 중앙 집중식 체제가 의사소통의 신속성을 어느 정도 담보했으나, 부대와 장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지휘 효율성의 심각한 저하를 초래했다.

특히 전담 부서의 부재 속에서 공군본부가 일상적인 부대 관리, 군수 보급, 인사 행정 등 ‘군정(軍政)’ 업무와 일선 전투 부대의 작전 지휘인 ‘군령(軍令)’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극심한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참모총장의 지휘 폭(Span of Control)이 과도하게 넓어져 비상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따랐다. 김신 총장은 1960년 8월 취임사에서 이러한 관행을 지적하며 “현대공군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역설했다.²¹⁾

더욱이 이 시기는 소련이 1950년대 후반부터 마하 2.0 이상의 속도를 내는 초음속 요격기 MiG-21을 일선에 배치하기 시작한 안보 위기 국면이었다. 소련의 최신예기인 Mig-21은 소수이지만 1962년 북한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제트기 시대의 공중전은 레이더 포착부터 요격기 발진 명령까지의 허용 시간이 매우 짧아졌다. 행정 결재 절차를 거쳐 요격 명령을 내릴 여유가 없었으므로, 전방의 공중 위협만을 감시하고 작전 지휘를 전담할 독립적인 작전사령부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했다.

또한, 연합작전 측면에서도 편제적 한계가 존재했다. 미 공군은 기능사령부 체제를 고도화하여 작전, 군수, 훈련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 공군이 주한 미 제7공군과 원활한 파트너십을 이루고 미 공군의 교리를 일선 부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군 작전사령부와 교신하며 지휘 역량을 맞추는 ‘작전 전담 카운터파트’의 신설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21) 공군본부, 『역대총장 연설문집 2(제6대-10대)』(1984), p.43.

나. 공군작전사령부의 공식 창설과 지휘체계 재편



〈사진 1〉 공군작전사령부 창설식

〈출처: 공군본부, 『공군 25년사』(1974). p.74〉

이러한 군사적 도전에 직면하여, 김신 총장은 부대 지휘와 일반 행정을 분리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1961년 7월 1일, 그는 “전술공군의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작전의 적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 전투 부대들을 통합한 공군작전사령부(Air Force Operations Command, AFOC)를 공식 창설했다.²²⁾

작전사령부의 주둔 위치는 경기도 오산기지(Osan AB)로 정해졌다. 오산은 주한 미 공군의 타격 전력이 주둔하고 한반도 상공의 항적을 감시·통제하는 중앙방공통제소(MCRC)²³⁾가 위치한 한미 연합 공중 작전의 중추였다. 공군본부가 위치한 서울을 떠나 실전적 요충지인 오산에 작전 지휘부를 설치한 것은,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전장 상황 인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전투 임무 중

22) 공군본부(1968), pp.130-133., 공군본부, 『사진으로 본 공군 50년사』, (1999), p.98.

23) 공군본부(1968), pp.179-189. 1957년말 제30관제경보전대가 창설되었으며, 1958년 11월 전대본부가 수원에서 오산으로 이동. 1959년 오산 중앙방공통제소(C-75)를 인수. 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라 작전사령부로 예측 변경.

심'으로 부대를 운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었다.

편제상으로도 권한 이양과 구조 개편이 수반되었다. 기존에 참모총장 직할로 편제되었던 전방의 주력 전투 비행단들과 대공 방어를 담당하는 전대들이 모두 신설된 작전사령관 예하로 배속 전환되었다. 이로써 공군본부는 정책 및 교리 수립, 예산 획득, 군수 보급망 관리 등 거시적인 양병(養兵)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오산의 작전사령부는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적의 도발이나 공중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는 용병(用兵)에 집중할 수 있는 이원화된 지휘 체계가 완성되었다.

다. 군사적 의의: 현대 전술공군으로의 비약적 발전

공군작전사령부의 창설은 현대 항공 교리의 원칙인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권적 임무 수행(Centralized Control and Decentralized Execution)”을 한국의 작전 환경에 맞춰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군사적 사건이었다. 한반도 전역의 공중 위협 상황을 오산의 작전사령부가 MCRC의 레이더망을 통해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통합 통제하되, 교전하는 전투기의 요격 전술과 세부 비행 임무는 각 일선 전투비행단의 지휘관 재량에 위임함으로써 ‘지휘의 일관성’과 ‘현장의 신속성’을 동시에 도모했다.

김신 총장은 1961년 10월 1일 건군 13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작전사령부 창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근간에 작전사령부의 창설을 비롯하여 병력관리, 교육 훈련, 신예 장비 등 비약적 발전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중략) ...이는 실로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함에 있어 낡은 구각을 완전히 탈피하여 현대 전술공군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발전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²⁴⁾

24) 공군본부(1984), p.69.

1961년 국방의 심장부에 단행된 오산 공군작전사령부(AFOC)의 전격적인 창설은 6·25 전쟁 직후 지상군 화력을 보조하는 지원 임무에 매몰되어 있던 한국 공군이 ‘현대 전술공군’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전사령관이 전구 내 항공 및 대공 방어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북한 공군의 수적 우위와 질적 우위에 대해 ‘지휘 통제와 속도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적 유연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는 사실상 상하관계에 가까웠던 한미 군사 파트너십을 보다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구조적 토대가 되었다. 오산기지라는 전략적 공간에 작전사령부가 자리를 잡음으로써, 한국 공군 사령관은 더 이상 분산된 예하 부대에서 미 고문관의 개별 지시에 일일이 반응하는 수동적 위치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같은 오산기지에 주둔하는 주한미공군사령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한국 공군작전사령부는 요격작전, 모의 가상적기(FAKER) 임무, 근접 항공지원(CAS) 임무는 물론 한미합동 방공훈련과 전술평가훈련 등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전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²⁵⁾

특히 1961년 5·16 군사혁명 직후라는 극도의 정치적 민감성 속에서 오산기지에 작전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한미 군사 파트너십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61년 케네디 행정부 출범 직후, 미 국무부와 정보 당국은 한국의 정치적 군사정변(Coups in South Korea)과 한국군 무장 병력(Armed forces of South Korea)의 동향,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U.S. bases and installations in South Korea)의 안전 문제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²⁶⁾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25) 공군본부(1968), p.133.

26)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한국 공군이 미 7공군 및 MCRC가 위치한 오산에 독립적인 작전 지휘부를 구축하고 미군과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공유한 것은, 내부적인 정치적 혼란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의 군사적 통제력과 한미 연합 방공 체제는 흔들림 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신호를 미국 측에 발신한 전략적 성과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의 조직 혁신은 작전사령부라는 전문화된 작전 지휘 체계를 뿌리내리게 하여, 1960년대 중후반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고 향후 초음속 전투기(F-5A/B, F-4D) 도입 시대를 무리 없이 수용하는 바탕이 되었다.

4. 전력 증강과 훈련 체계의 현대화

가. 북한의 제트기 증강과 공군력 불균형의 심화

1950년대 후반은 한국군의 전반적인 무기체계 현대화와 군 구조 재편이 맞물린 시기였다. 1958년 한미 간에 합의된 제1차 감군(減軍) 계획에 따라 육군은 2개 사단을 포함해 대규모 병력을 감축해야 했다. 그 결과 육군 병력은 약 9만여 명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공군은 오히려 3,360명이 증원된 2만 2,400명으로 병력 규모가 확대되며 성장의 전기를 마련했다.²⁷⁾ 특히 공군은 1955년 미국으로부터 F-86F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1958년에는 제11전투비행단을 창설하는 등 비로소 현대적인 전술공군 체제를 갖추기

1961-1963, Vol. XXII, Northeast Asia, Subject-Numeric Central Files (POL 26 S KOR, DEF 6 S KOR, DEF 16 S KOR-US 참조).

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 전력증강사 1 (1945~1960)』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pp.315-318.

시작했다.²⁸⁾ 이러한 1950년대 후반의 질적·양적 팽창을 토대로 1960년대 초반 김신 총장이 마주한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한반도 상공에서 다시금 급격히 기울어가는 전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앞선 군비 증강 노력으로 F-86F 세이버(Sabre)를 주력 제트전투기로 운용하며 1950년대의 하늘을 지켰으나, 무기 체계의 세대교체는 냉혹하리만치 빨랐다. 미 공군이 1958년을 기점으로 이미 구형이 된 F-86F의 운용을 전면 중단하면서, 한국 공군에는 부품 단종을 비롯한 심각한 군수 지원상의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주요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다른 기체의 부품을 떼어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라고 하는 동류전용 정비가 빈번해졌고, 이는 곧 전투기 가동률의 급격한 저하로 직결되었다.

이에 반해, 북한 공군은 1960년대에 접어들며 소련과 중국의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등에 업고 양적·질적 팽창을 거듭하며 한국을 매섭게 압박했다. 북한은 기존의 아음속기인 MiG-15를 넘어 상승력과 선회 성능이 뛰어난 신형 MiG-17 및 MiG-19를 도입했다. 무엇보다 전술적으로 뼈아픈 타격은 마하 2급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MiG-21을 선제적으로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당시 북한 공군이 보유한 이들 제트전투기 전력은 무려 550여 대 이상이었다.²⁹⁾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최고 속도가 마하 0.9 수준에 불과한 아음속기인 한국 공군의 F-86으로는, 고공에서 마하의 속도를 돌파하며 기습적으로 침투하는 MiG-21를 쫓아가 요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약 1:4에 가까운 압도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 전술적인 인해전술도 통하지 않는 세대를 뛰어넘는 질적 열세까지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20), pp.357-361.

29) 공군본부(1968), pp.84-93. 1961년 배치되었던 MIG-19 40대는 폐기되었으나 1962년말부터 MIG-21이 14대 배치되었다.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 보유 대수는 F-86D, F-86F를 합쳐 대략 160여대 수준이었음.

접친 이중고였다. 이는 한국 공군에게 있어 단순한 장비 열세를 넘어 국가 영공 방어망이 뚫릴 수 있다는 생존의 위기였으며, 김신 총장에게 획기적이고 즉각적인 전력 증강 전략의 수립을 요구했다.

나. 조종사 양성 파이프라인의 완성: T-28 훈련기 도입

장비의 노후화와 적의 전력 급증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김신 총장은 최신예 전투기를 도입하는 하드웨어적 접근만큼이나 이를 능숙하게 운용할 ‘정예 조종사 육성’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국방력의 핵심임을 간파했다. 당시 한국 공군의 가장 큰 맹점은 훈련 체계의 극단적인 ‘단절’에 있었다. 창설 초기부터 미 군사고문단(6146th AFAG)의 지원 하에 L-4, L-5, L-16, T-6, F-51 등 제2차 세계대전형 프로펠러기에 의존해 온 조종사 양성 체계³⁰⁾는 제트기 시대의 비행 특성과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특히 구형 프로펠러기인 T-6 훈련기로 기초 훈련을 마친 조종학생들이 고속의 제트 훈련기나 전투기로 기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훈련의 연계성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다. 제트 전투기 운용에 필수적인 비행 감각과 기술을 구형 기종으로는 충분히 교육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훈련 체계의 낙후성은 현대화된 제트기 조종사 양성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한계로 지적되었다.

김신 총장은 이러한 훈련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제트기 조종사 양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1960년 12월 미국의 군사 원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중등 비행 훈련기인 T-28 트로이전(Trojan)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T-28은 비록 겉모습은 프로펠러기였지만 고출력 피스톤 엔진을 장착했고, 제트전투기와 동일한 3륜식 착륙장치 및 현대화된 계기판을 갖추어 제트기와 매우 유사한 조종 감각과 하중을 제공했다.

30) 6146 AIR FORCE ADVISORY GROUP (ROKAF), p.1.



〈사진 2〉 T-28A

〈출처: <https://www.airhistory.net/photo/621819/17639>〉

공군은 T-28의 도입과 발맞추어 기존에 운용하던 노후화된 T-6 훈련기를 전면 폐기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³¹⁾ 이는 곧 구형 프로펠러기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초등비행(L-19/T-28) → 중등(T-33) → 고등(F-86F)’으로 이어지는 제트기 시대에 걸맞은 한층 현대화된 조종사 훈련과정이 한국 공군에 새롭게 구축되었음을 의미했다. 기존 T-6에서 제트기로 직행할 때 발생하던 극단적인 기량적 간극을 제트기의 비행 특성에 훨씬 더 가까운 T-28이 효과적으로 메워줌으로써, 학생 조종사들의 인지적·육체적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훈련을 마치고 일선 전투 비행단에 실전 배치되는 조종사들의 전술적 임무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한정되고 귀중한 제트 비행 자산을 사고의 위험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튼튼한 토대가 되었다.

31) 공군본부(1968), p.362. 1962년 12월 1일 퇴역식

다. 초음속 시대로의 도약 준비

조종사 훈련 체계를 개편한 공군 지휘부의 시선은 다가올 초음속 시대의 제공권 장악이라는 더 먼 미래를 향해 있었다. 1950년대 후반, 대만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 공산군의 MiG기들과 실전 공중전을 치르며 직면했던 군사적 위협³²⁾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특히 김신 총장은 개인적으로 대만 군 수뇌부 및 주요 지식인들과 각별한 친분과 동문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공식적인 정부 채널이 아니더라도 사적인 교류나 구두 설명을 통해 대만으로부터 당시 공중전의 실제 양상과 중국 MiG기의 치명적인 위협에 관한 생생한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비공식적 정보 교류를 통해 미그기의 성능과 위력을 뼈저리게 인식한 공군 지휘부는, 부품 단종으로 가동률마저 떨어지는 기존의 아음속기 F-86 체제만으로는 머지않아 국가 영공 방어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심각한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김신 참모총장이 임기 중 직접 미국 측과 교섭하여 특정 기종의 도입을 실질적으로 확정 짓거나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미국의 대외 군사원조 계획상 초기에는 F-104가 거론되는 등 기종 선정 과정에 여러 외교적, 기술적 변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³³⁾ 그러나 1958년부터 가시화된 주력기 F-86F의 부품 단종 사태와 가동률 저하, 그리고 이에 노골적으로 대비되는 북한의 다수의 MiG기 실전 배치 첩보는 공군 지휘부에게 국가 방공망이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는 뼈저린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32) 1958년 금문도 포격전시 대만의 F-86은 중국의 Mig-17과 공중전을 벌인 사례가 있음. Miles Maochun Yu, "Guns Of August In The Taiwan Strait, 1958" *Military History in the News*, Hoover Institution, (Nov 14, 2022), <https://www.hoover.org/research/guns-august-taiwan-strait-1958>

33) 김덕수(2017), pp. 297-305.

이러한 벼랑 끝의 안보 현실 속에서, 김신 총장을 비롯한 이 시기 공군 수뇌부는 ‘기존의 낙후된 아음속 전력을 전면 대체할 새로운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확보가 국가 영공 수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공유하고, 훗날 전력 현대화의 단단한 사상적 토대를 구축하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비록 김신 참모총장이 초음속기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나, 당시 전력증강 사업은 미국의 대외군사원조(MAP) 정책과 예산 할당량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의 임기 내에 차세대 전투기의 실질적인 기종 선정이나 전력화로 직결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비대칭 위협을 분석하여 초음속기 보유의 작전적 소요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사상적 토대를 구축한 점은, 훗날 1965년 F-5 도입의 밑거름이 된 선구적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

5. 작전 교리의 발전과 군사 활동

가. 전천후 방공작전 체제 구축과 독자적 교리의 정립

1960년대 초반, 김신 참모총장 재임기의 한국 공군 작전 교리는 6·25 전쟁 당시 전적으로 미 공군의 철저한 통제 아래 수행되었던 ‘지상군 근접항공지원(CAS)’ 위주의 피동적이고 종속적인 전술 구상에서 탈피하여, 한반도 전역을 스스로 아우르는 ‘독자적인 전천후 영공방위’의 굳건한 기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했다. 당시 북한 공군의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제트 전투기 증강은, 단순히 주간의 맑은 시계 비행 환경뿐만 아니라 북한

공군이 야간의 어둠이나 악천후 상황을 틈타 기습적으로 영공을 침투해 올 수 있다는 극심한 비대칭적 위협을 고조시켰다. 만약 북한기가 야간이나 구름 속으로 기습 남하할 경우, 조종사의 육안 식별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주간 전용 전투기(Day Fighter)’ 중심의 전력으로는 요격은 커녕 적의 항적 추적조차 불가능한 치명적인 방공망의 구멍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군은 재래식 요격 전술의 근본적인 한계를 깨고, 첨단 레이더 관제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천후(All-Weather) 방공 교리’를 시급히 수립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사진 3〉 F-86D 인수식

〈출처: 대한뉴스 제289호 국군소식 <https://www.youtube.com/watch?v=4PKJo5UA-QA>〉

이러한 교리적 대변혁을 이끌어낸 핵심적인 물리적 기반은 바로 전천후 요격기인 F-86D의 본격적인 도입 및 전력화였다.³⁴⁾ 이른

34) 공군본부, 『사진으로 본 공군 50년사』, (1999), p.9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오늘의 기록, 12월 8일 F-86D형 전천후요격기 인수식”, <https://theme.archives.go.kr/next/daily/viewMain.do?selectDay=20131208>, 1960년 2월 10일

바 ‘세이버 독(Sabre Dog)’으로 불린 이 기종은, 기수(코) 부분에 조종사의 눈을 대신할 강력한 표적 탐지 레이더와 자동 요격 연산 시스템을 장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기존의 F-86F가 육안 전투를 벌였다면, F-86D가 196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작전에 투입됨에 따라 한국 공군은 전파와 레이더를 매개로 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술적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에 공군은 지상 레이더 기지인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보내는 정밀한 항적 유도 정보에 따라, 조종사가 조종석의 좁은 계기판과 레이더 스크린만을 의지하여 악천후 속에서도 맹렬히 적기를 찾아내고 정밀하게 타격하는 새로운 교리, 즉 ‘지상통제요격(Ground Controlled Interception, GCI)’ 교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최우선으로 발전시켰다.

이 시기 공군은 전천후 작전 능력을 조기에 배양하기 위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극도의 위험을 감수하며 야간 및 악천후 비행 훈련의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다. 아울러 방공관제기구의 통신망과 관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한반도 전역에 24시간 빈틈 없는 공중 감시 체제를 촘촘히 갖추어 나갔다.³⁵⁾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야간의 어둠 속이나 짙은 구름 속에서, 오로지 조종석의 계기판 지침과 헤드셋으로 들려오는 MCRC 지상 통제사의 음성에만 의지한 채 보이지 않는 가상의 적기를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해야 하는 이 GCI 훈련은, 조종사들에게 극도의 심리적 압박과 전례 없는 고도의 정밀한 비행 기량을 요구했다. 조종사들은 잦은 비행 착각(Spatial Disorientation)의 공포를 이겨내고 한치의 오차 없이 표적을 향해 무장을 발사하는 고난도의 계기비행 및 요격 훈련을 피나는 노력으로 반복 숙달하며, 마침내 한국 공

최초 도입 후 1960년 11월 14일까지 18대를 인수.

35) 공군본부(1968), pp.135-140. p.186.

군의 작전 교리를 문자 그대로 ‘전천후(All-Weather)’의 무결점 영역으로 눈부시게 확장시켰다.

또한, 앞에서 다른 1961년 공군작전사령부(AFOC)의 전격적인 창설은, 단순히 행정적 사령부의 신설을 넘어 이러한 전천후 방공 교리를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작전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실체화하는 강력한 지휘통제(C2)의 구심점이자 뇌관이 되었다. 한반도 산하 전역에 점조직처럼 흩어져 있던 조기경보 레이더망과 일선 요격비행단들이 작전사령부라는 하나의 신경망 아래 일원화된 통제로 유기적으로 굳게 묶임으로써, 한국 공군은 과거 미 공군의 일방적인 방공 지시나 통보에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던 뼈아픈 관행에서 비로소 완벽하게 벗어나기 시작했다. 거대한 상황판 앞에서 적기의 남하 징후를 우리 스스로 먼저 포착하고, 최적의 비행단에 즉각적으로 긴급 발진 명령을 하달하며, MCRC의 지상 통제를 통해 공중에서 안전하게 요격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시키는 전 과정을,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독자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 영공방위 교리’가 김신 총장의 치열한 재임기를 거치며 마침내 흔들림 없는 확고한 뼈대를 갖추게 된 것이다.

나. 작전통제권의 실질적 행사와 능력의 발전

1960년대 초반 한국 공군은 무기 체계의 현대화와 더불어,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영 전반을 지도해 온 주한 미 공군과의 관계를 ‘대등한 군사 파트너십’으로 재정립해 나갔다. 6·25 전쟁기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양국의 군사적 관계는 원조국과 수혜국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초기 미 군사고문단은 비행 훈련 및 장비 정비를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 조종사들과 탑승하여 전방의 근접항공지원(CAS) 및 무장 정찰 임무를 주도적으

로 수행하는 등 작전 영역에도 깊이 관여했다.³⁶⁾ 더 나아가, 한국 공군은 빗발치는 대공포 속에서 작전 중 조난되거나 비상 탈출한 조종사를 스스로 구출할 자체 탐색구조 부대조차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여, 위급 상황 시 오산기지에 주둔하던 미 공군 제6314구조비행대대에 전적으로 귀중한 조종사의 생명줄을 구걸하듯 의존해야만 하는 참담한 실정이었다.³⁷⁾

그러나 실전의 사선을 넘어온 김신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조국 방위를 능히 우리 힘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현대공군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공식 석상에서 강력히 천명하며,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미군에 대한 일방적인 작전 지휘 및 군수 의존에서 과감히 벗어날 것을 전 장병에게 엄중히 주문했다.³⁸⁾ 그는 미군의 전술 교범과 무기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은 겸허히 인정하면서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앵무새처럼 따르거나, 숲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전투에만 매몰된 육군의 근시안적인 근접항공지원(CAS) 요구에만 순응하는 수동적 태도를 군 내부에 강하게 경계했다. 6·25 전쟁 당시 육군의 단편적이고 다급한 지원 요구를 뒤로하고, 적의 후방 보급로와 동맥을 직접 끊어버리는 항공 차단(Interdiction) 작전의 압도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상부의 압박 속에서도 끝내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을 관철해 냈던 그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야전 경험은, 곧 한국 공군이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이고 거시적인 전략적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굳건한 지휘 철학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³⁹⁾

이러한 김신 총장의 강력한 자주화 의지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

36) USAF Unit Histories, 『6146 AIR FORCE ADVISORY GROUP (ROKAF)』, pp.1-3.

37) 공군본부(1968), p.119.

38) 공군본부(1984), p.43.

39) 김신(2013), p.191.

이나 군사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실력 행사로 전군에 입증되었다. 1961년 10월 1일 전군 13주년 기념사에서 그는 마침내 “항공기의 창정비를 위시한 모든 후방 면에 있어서 독자적 수행 능력이 완성되었음”을 전군과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선포했다.⁴⁰⁾ ‘창정비’란 단순히 일선 부대에서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는 가벼운 수준의 정비를 넘어,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항공기를 공장 단위에서 완전히 분해하고 정밀 수리하여 새 비행기에 준하는 상태로 완벽히 복원해 내는 최고 난도의 항공 공학적 정비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전적으로 우리 정비사들의 손으로 해냈다는 것은, 곧 한국 공군이 미 군사고문단의 간간한 기술적 통제와 군수 지원의 목줄에서 완전히 벗어나, 언제든 우리가 원하고 작전이 필요할 때 전투기를 마음껏 띄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작전 지속 능력(Sustainability)’을 자주적으로 확보했음을 뜻하는 거대한 국가적 성과였다.

결과적으로 강렬했던 김신 총장 재임기를 거치며, 한국 공군은 미군의 시혜적인 원조만을 바라보던 피동적 대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스스로 척박한 교리를 발전시키고 자주적인 창정비를 수행하며 능동적으로 조국의 영공을 방위하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실질적 기틀을 반석 위에 확고히 다지게 된 것이다.

6. 정치적 소용돌이 속의 리더십

가. 항일 독립운동의 유산과 중화민국(대만)과의 군사 외교

김신 총장의 독특한 생애적 배경은 한반도 내의 군사 정책을 조

40) 공군본부(1984), p.69.

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냉전 시기 아시아 태평양의 대외 군사 외교 무대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의 아들이라는 묵직한 역사적 배경과, 중국 대륙에서 망명 정부의 피난길을 함께하며 난징과 창사(長沙) 등을 거쳐 중화민국 공군군관학교를 졸업한 이력은, 당시 동아시아 반공 벨트의 주요 핵심 국가였던 중화민국(대만)과의 군사 외교에서 상호 우호적인 교류의 매우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⁴¹⁾

김신은 과거 10대 시절부터 서남연합대학 등에서 맺은 중국의 주요 지식인 및 고위 관료들과의 인연, 그리고 윈난과 인도 라호르의 비행학교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중국인 동기들과 사선을 넘나들며 함께 땀 흘렸던 동문 의식을 두텁게 공유하고 있었다.⁴²⁾ 이러한 역사적, 인적 네트워크와 깊은 상호 신뢰의 배경을 바탕으로, 그는 참모총장 재임 시 대만 군 지휘부 및 실무진들과 공식적인 외교 채널의 경직성을 뛰어넘는 상대적으로 원활하고 긴밀한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단순한 친선 교류를 넘어 양국 공군 간의 실효성 있는 전술적 교류를 확대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 후반 대만 공군은 대만 해협의 영공을 두고 중국군 소속의 MiG기들과 치열한 실전 공중전을 직접 경험하며 귀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다. 당시 김신 총장이 구축한 대만과의 굳건한 인적 교류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한국 공군이 미국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텍스트 중심의 교범을 넘어, 양국 협력 채널을 통해 실제 전장의 생생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공유받았을 개연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볼 수 있다. 가령 미사일 회피 기동이나 근접 공중전 발생 시 미그기의 선회 반경

41) (사)김신장군 기념사업회, “김신 이야기, 군인의 삶”, <http://www.kimshin.org/info/story.asp>

42) 김신(2013), pp.77-78.

등 구체적 전술 데이터, 그리고 공산권 항공기의 운용 전술 등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한이 보유한 Mig기 공중 위협에 직면해 있던 한국 공군에게 대만의 실전 경험은 매우 절실한 참고 자료였을 것이다. 비록 구체적인 전술 데이터의 직접적인 이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공식 사료는 없지만, 대만과의 밀접한 인적 교류를 통해 얻은 군사적 통찰이 한국 공군작전사령부 산하의 자체적인 교리 연구나 대(對) 미그기 방공 전술 구상에 긍정적인 영감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김신의 생애적 이력과 대만 수뇌부와와의 역사적 유대는, 초기 한국 공군이 미국이 통제하는 단일한 군사 원조 정보망에만 피동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대만이라는 역내 핵심 군사 파트너와 협력 채널을 다각화하려 했던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중심의 정보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실전 전술 정보 획득을 모색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의 틀 안에서도 한국 공군의 작전적 자율성과 대응 능력을 한 차원 높이려 했던 당시 지휘부의 전략적 지향점을 보여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후속 연구가 검증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나. 5·16과 공군의 전략적 대처

1961년 5·16 군사정변의 발생과 그에 따른 공군의 대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방체제를 지배하던 거시적 모순과 군종별 역학관계를 짚어보아야 한다. 기형적인 육군 중심의 방대한 병력 구조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국가적·조직적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외군사원조(MAP)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지상군의 유지비용은 한국 경제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1958년부터 한미 간 병력 감축(감군) 논의가 본격

화되어, 우여곡절 끝에 육군 2개 사단을 포함하여 약 9만 명을 감축하는 1차 감군이 단행되었다.⁴³⁾ 이어서 1960년 출범한 제2공화국(장면 정부)은 국가 재정 안정을 위해 다시 한번 3만~5만 명 규모의 2차 감군과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한 정군(整軍)을 강행하였다.⁴⁴⁾ 이러한 급격한 감군 및 정군 정책은 방대한 전국적 지휘망과 기득권을 쥐고 있던 육군 내부에 거대한 풍파를 일으켰다. 당시 육군은 학맥과 지역주의, 그리고 극심한 진급 적체 불만이 뒤섞여 강한 내부 파벌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⁴⁵⁾ 결국 감군 정책에 따른 생존의 불안감과 파벌 간의 알력은 육군 장교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촉매제가 되었고, 이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이라는 형태로 폭발하며 군이 국가 권력의 전면에 나서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후발 소규모 군종이었던 공군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었다. 공군은 육군과 같이 국내 정치를 장악할 만한 방대한 파벌 기반이나 전국 단위의 지상 지휘망을 갖추지 못했으며, 작전 역량 유지를 위해 철저히 미 7공군의 기술적 지원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작전적 특수성은 역설적으로 공군이 국내의 권력 쟁취 투쟁에서 한걸음 비껴나 자신들의 군사적 전문성 유지에 매진하게 만드는 객관적 조건을 제공했다. 5·16 모의의 핵심 주체에서 공군이 비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신 총장이 조직의 안위와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전략적 대처의 배경에는, 이러한 공군만의 비정치적·기술적 특수성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다.

43) 백기인(2008), pp.81-83.

44) 백기인(2008), p.84.

45)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pp.18-19. 이 문서는 1978년 10월 31일자로 美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산하 국제기구 소위원회의 보고서이다.

1961년 5월 16일 발생한 사건은 육군 소장 박정희를 위시한 일부 육군 장교들이 주도한 것으로, 국방 권력과 헌정 질서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상대적으로 병력 규모가 작고 항공기 운용이라는 기술적 전문성이 강조되던 공군은 애초에 이 모의의 핵심 주체에서 비껴나 있었다. 그러나 직후 권력을 장악한 군사혁명위원회(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는 군 지휘부 재편과 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숙정(肅正) 작업을 전 군에 걸쳐 단행했다.⁴⁶⁾

이러한 정국 속에서 공군의 수장인 김신 총장은 조직의 안위를 둔 딜레마에 직면했다. 육군 중심의 군사정부가 국방 의사결정 구조와 자원 배분 권한을 장악한 상황에서, 공군이 주도 세력과 갈등을 빚을 경우 오랜 시간 양성한 핵심 자산인 조종사들이 대규모 인사 조치에 휩쓸리거나 조직의 자주성이 훼손될 우려가 존재했다.

이에 김신 총장은 군사정부와의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면서 공군의 조직적 이익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노선을 취했다. 그는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육군이 주도하는 군정 통치 구조 내부에 공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식 연설을 통해 “국가재건의 대과업을 맞이하여 지금 전국민의 크나큰 희망이 국군에 집중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그 생활의 갱생과 민족의 발전을 군의 과감한 선도와 전진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국가 재건 목표에 협조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했다.⁴⁷⁾ 그러나 공군 조직과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현실주의적 선택은, 결과적으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군사정권의 통치 기구에 편입됨으로써 국군 본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으로부터

46)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경기: 웅진 지식하우스, 2018), p.287.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1권』(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0), p.297.

47) 공군본부(1984), pp.56-57. 1961년 5월 22일 훈시문 “공군장병에게 고함”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당대 군 수뇌부가 안고 있던 정치·사회적 한계이자, 그의 지휘리더십이 지니는 뚜렷한 명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급변하는 체제 속에서 공군을 보호하는 일종의 정치적 레버리지로 작용했다. 군사정부와의 전면적인 대립을 피함으로써 비행 자원인 조종사들이 대규모 숙정 대상에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공군작전사령부 창설’이나 ‘T-28 도입’과 같이 그가 추진해 온 공군 현대화 과제들이 정권 교체의 여파로 좌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

정치적 혼란기에도 공군은 작전 지휘 체계의 확립과 전천후 방공훈련의 고도화, 정비 능력 배양 등 군 본연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김신 총장 역시 1962년 8월, 2년의 참모총장 임기를 마친 후 군복을 벗고 전역했다. 위원 참여라는 정치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임기 종료와 함께 군을 떠난 그의 결정은, 당시 군사정권 내 다수의 장성들이 권력 핵심으로 이동했던 궤적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군이 정치적 논쟁 중심에서 벗어나 군사적 전문성을 유지하고 전력을 증강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한미 군사 파트너십 유지와 전력 증강의 연속성

5·16 직후 공군 수뇌부가 직면한 또 다른 안보 과제는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군사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당시 유엔군 및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매그루더(Carter B. Magruder) 장군과 주한 미국 대사관은,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불만을 표출했다.⁴⁸⁾ 이는 군사 장

48) 이완범, 박준식, 공제욱, 양병기, 김일영, 『1960년대 정치사회변동(한국현대사의 재인식 10)』(서울: 백산서당, 1999), p.291.

비와 부품의 대부분을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 공군에게 있어, 원조 삭감 내지 중단이라는 안보 공백 우려를 낳는 요인이었다.

특히 5·16 군사정변으로 새롭게 등장한 군사정부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국가 방위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최우선 국가 안보 과제는 정변으로 등장한 새 정부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는 한편, 주한미군의 감축 없는 지속적인 주둔을 보장받고 국군 현대화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협조를 굳건히 확보하는 것이었다.⁴⁹⁾ 따라서 상충부의 정치·외교적 갈등이 실질적인 군사 원조의 중단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낼 ‘군사 당국 간의 견고한 실무적 완충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외교적 긴장 국면 속에서도, 실질적인 작전과 군수 지원을 담당하는 한미 공군 간의 군사적 파트너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여기에는 김신 총장 재임 기간 중 주한 미 군사고문단 및 미 제7공군과 지속적으로 구축해 온 작전 교류와 실무적 협력 관계가 일정 부분 기여했다. 이러한 군사 당국 간의 실무적 공감대는 상충부의 정치적 변동이 군사 동맹의 심각한 균열이나 즉각적인 군수 지원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완충재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한국 공군의 전력 유지와 증강 사업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T-28 훈련기의 추가 물량 인도와 기존 F-86 전투기의 부품 지원이 지속되었으며, 차세대 전투기인 F-5A/B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 역시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다.⁵⁰⁾ 이러한 전력 증강의 연속성은 대공

4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70년사 (1953~202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p.43.

50) 김덕수(2017), p.297.

산권 억지라는 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과 한미 군사 당국 간의 제도적 필요성이 맞물린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군 지휘부가 군 내부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미군과의 실무적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군의 전력 증강 및 현대화’라는 조직적 과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조직사적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7. 결론

본 연구는 정치적 격변기였던 1960년대 초반, 제6대 공군참모총장 김신(金信)의 군사적 리더십이 한국 공군의 근대화와 작전 능력 발전에 미친 영향을 조직사적·군사 기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960년부터 1962년까지의 재임 기간은 4·19 혁명과 5·16이 잇달아 발생하며 체제의 붕괴와 재편이 교차한 위기의 시기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는 한국 공군이 미군에 종속된 전술 지원군이라는 틀을 벗어나, 스스로 기획하고 통제하는 현대 전술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이기도 했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1년에 단행된 공군작전사령부(AFOC) 창설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전략적 혁신이었다. 공군본부에 집중되어 있던 군정과 군령을 분리함으로써 지휘 부담을 줄이고 작전 지휘통제(C2)의 신속성을 높였다. 특히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연계된 작전사령부의 구축은 한국 공군이 미 공군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영공을 방위할 수 있는 항구적인 기틀을 완성한 것이었다.

둘째, 김신 체제의 공군은 북한의 급격한 제트전투기 전력 팽창에 맞서 현실적이면서도 미래를 내다본 전력 증강 전략을 추진했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노후화된 T-6를 퇴역시키고 T-28 중등 훈련기를 도입함으로써 조종사 양성 체계의 공백을 메운 것이다. 이는 인명 손실을 줄이고 조종사의 실전 기량을 끌어올린 실질적인 전력 개선이었다. 나아가 도입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훗날 F-5A/B가 한국 공군의 주력으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논리적 토대를 마련했다.

셋째, 극심한 혼란 속에서 그가 보여준 정치적·외교적 행보는 공군의 생존과 성장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했다. 5·16 직후 최고 통치 기구에 참여한 것은 권력 추종이 아니라 공군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조종사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 또한 항일 독립운동 시기 중국에서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는 중화민국(대만)과의 비공식 정보 교류 채널로 이어졌으며, 그의 군사적 전문성은 한미 간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군사 원조의 연속성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자산이 되었다.

물론, 1960년대 초반 한국 공군의 발전이 전적으로 김신 총장 개인의 역량만으로 성취된 것은 아니다. 당시 공군의 편제 팽창과 현대화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극동 방공 전략 변화와 무기체계 이전 계획이라는 거시적 구조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또한, 5·16 군정 기구 참여 역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역사적 과오를 남겼다.

결론적으로, 김신 참모총장의 재임기는 격동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전천후 방공 교리를 정립하고 자체 창정비 역량을 확보하는 등 한국 공군이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결정적인 시기였

다. 그의 강인한 리더십은 부친 백범 김구로부터 이어받은 대의에 대한 헌신과, 실전을 통해 다듬어진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한 판단력이 결합된 결과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신은 단순히 혼란기를 버텨낸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척박한 안보 환경 속에서 현대 한국 공군의 작전적·조직적 토대를 쌓은 선구적 군사 전략가로 재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문 자료

-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1권』(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0).
 공군본부, 『공군 25년사』(1974).
 _____, 『공군사 제3집』(1968).
 _____, 『사진으로 본 공군 50년사』(1999).
 _____, 『역대총장 연설문집 2(제6대-10대)』(198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 전력증강사 1 1945-1960』(2020).
 _____, 『한미동맹 70년사 (1953~2023)』(2023).
 _____,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2016)
 _____, 『6·25전쟁 주요 전투 2』(2017).
 김덕수, 『항공 정비록』(경기: 21세기북스, 2017).
 김신, 『조국의 하늘을 날다』(경기: 돌베개, 2013).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경기: 웅진 지식하우스, 2018).
 이완범, 박준식, 공제욱, 양병기, 김일영, 『1960년대 정치사회변동(한국현대사의 재인식 10)』(서울: 백산서당, 1999).

2. 논문 및 공식 문서

- 김민호, “한국광복군 출신의 대한민국 국군 참여와 역할” 『군사 제125호』 (2022).
 백기인, “한국 국방체제의 형성과 조정, 1945~1970”, 『군사(軍史)』 제68호 (2008).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58-1960, Volume XVIII, Japan; Kore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61-1963, Volume XXII,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6).
USAF Unit Histories, “6146 AIR FORCE ADVISORY GROUP (ROKAF)”.

3. 인터넷 자료

(사)김신장군 기념사업회/김신 이야기/군인의 삶 (<http://www.kimshin.org/info/story.asp>) (검색일 : 2026년 2월 12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웹진 독립신문/충청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착과 외교 활동 (<https://www.nmkpg.go.kr/webzine/story/cn.do?rid=351>) (검색일 : 2026년 2월 12일).

대한민국 공군 유튜브 채널/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https://www.youtube.com/watch?v=7y2X64Cg\]wk](https://www.youtube.com/watch?v=7y2X64Cg]wk)) (검색일 : 2026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오늘의 기록/12월 8일 F-86D형 전천후요격기 인수식 (<https://theme.archives.go.kr/next/daily/viewMain.do?selectDay=20131208>) (검색일 : 2026년 3월 27일).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대한뉴스 제289호 국군소식 (https://www.youtube.com/watch?v=29y9kI8q2_Q) (검색일 : 2026년 3월 27일).

Miles Maochun Yu, “Guns Of August In The Taiwan Strait, 1958,” Hoover Institution (<https://www.hoover.org/research/guns-august-taiwan-strait-1958>) (검색일 : 2026년 3월 23일).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and Command Leadership of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 Focusing on the Tenure of the 6th Chief of Staff, General Kim Shin (1960–1962)

Lee, Soo-hun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military leadership of General Kim Shin, the 6th Chief of Staff of the Air Force, on the modernization and operational capability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ROKAF) during the politically turbulent early 1960s, from the perspectives of organizational history and military technology. Although the period from 1960 to 1962 was a time of crisis marked by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he May 16 Military Coup, it was paradoxically a decisive turning point for the ROKAF to break away from being a tactical support force subordinate to the U.S. military and leap forward as a modern tactical air force equipped with independent command and control capabilities.

By cross-verifying internal Air Force materials with documents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strategic decision-making of Kim Shin's leadership across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Air Force Operations Command (AFOC)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ll-weather

air defense doctrine, specifically Ground Controlled Interception (GCI), in 1961 were strategic innovations that separated military administration from military command and laid the foundation for an independent airspace defense system apart from the U.S. Air Force.

Second, in response to the asymmetric threat of North Korea's supersonic jet buildup, the leadership proactively introduced T-28 intermediate trainer aircraft, thereby filling the gap in the pilot training system and improving practical combat power.

Third, despite the disproportionately Army-centric defense structure and the political maelstrom following the May 16 Coup, General Kim protected the autonomy of the Air Force and firmly secured the continuity of ROK-U.S. military assistance through political realism and military diplomacy, utilizing human networks with Taiwan built since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period.

In conclusion, General Kim Shin's tenure is evaluated as the period that built the operational and organizational foundations of the modern ROKAF despite a harsh security environment. He should be reevaluated not merely as a political figure who weathered a period of turmoil, but as a pioneering military strategist who led the modernization of the Air Force.

Key Words : Kim Shin, Air Force Modernization, Air Force Operations Command (AFOC), Command Leadership, Military Diplomacy